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



가독

귀하고 소중하다. 당신도, 나도

이우섭 레오
사직성당, 소방공무원

-
-

12년 전 대학생이던 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때였다. 심장이 멎어 차갑게 실려서 왔던 한 사람이 따뜻해지고 직선으로만 이어지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조금씩 가파른 삼각형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구급대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다짐이 현실이 되어 벌써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급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구급차 안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구급 대상자들의 증상과 질병,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서 치료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본인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그런 수많은 말들 중에 오늘은 후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핑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내부에서는 수많은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들이 1초가 1년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의 대부분은 노인분들, 그들과 함께 2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더러 본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가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 몸이 "아픈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라는 이야기, 또는 웃고 있으나 슬픔에 잠겨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 주름지고 못생겨서 봐주는 이 하나 없다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모두에게는 아니나 나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드리곤 한다. "늙음은 모두가 갈 길이고 얼굴과 손, 발의 모든 주름은 당신께서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니 못생기지 않았고 충분히 멋있으시다"라고 말이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여러 사람을 접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르다. 감히 얘기하니 "그러지 마시라."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여 빛으시고,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아드님을 보내셨다. "스스로를 버리지 마시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누군가 분명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귀온 삶도 충분히 아름답기에 당신을 깎아내리지 말아주길 바란다.

모든 생명은 늙거나 어리거나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 글귀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를'

당신도 나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틀림없이 귀하고 소중하다. 



† 이달의 기도 지향 : 재난참사 희생자와 강제징용 노동자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차광준 닷넷 신부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반대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에 분명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등이다.

작년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빠트린 할로윈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159명의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한 참사는 아직까지도 그 참사의 충격이 모든 국민에게 여전히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의 피해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누군가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기가 스스로 놀러 갔다가, 일어난 사고에 의해 죽은 것인데, 위험한 곳에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행동을 한 본인 책임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라고 말이다. 과연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것일까? 설령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피해의 책임을 희생자 본인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올바른 사회일까? 우리는 왜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태원 사고라고 부르도록 강요받아야 하며, 왜 희생자, 피해자들을 사망자라고 부르도록 통제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라고 말한다. ‘사회적 참사’라는 표현은 사회의 운영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사회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바로 그 본성에서 반드시 사회생활이 필요하므로,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우연한 그 무엇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상호 의무, 형제적 대화 등으로 인간은 되도록 자신의 모든 재능을 키우고 자기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25항).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26항). 따

라서 사회는 개인의 삶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체계이기에,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만일 사회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어느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 체계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그 소속 집단에 대한 양심의 의무를 더욱 엄밀하게 이행하려면, 오늘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수단을 이용하여 더욱 폭넓은 정신 교양을 쌓도록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책임 의식을 지니게 되려면, (...) 모든 사람이 공동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그 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31항).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 이상 이 사회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태원 길거리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젊은 생명들을 보면서, 누가 이 사회 공동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의욕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톨릭 교회는 사회 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74항).

‘공동선’,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천명하고 있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의 가치가 얼마나 올바르게 지향되고 있는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

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사목 헌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고유 소명을 의식하여야 한다. 확고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공동선의 함양에 진력하여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제로 권력이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활동이 온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와 더불어, 적절한 일치가 유익한 다양성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75항)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사회 체계가 다시금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하여, 사회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4.16이 10.29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안녕이라는 말도, 잘 지내시냐는 말도 쓸 수가 없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어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은 단원고 2학년 5반 박성호 학생의 첫째 누나 박보나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식사는 조금씩 하고 계시는지, 연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들과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혹시라도 외롭지 않으실지 혹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아프실지 저는 짐작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을 저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희생자분들, 생존자분들의 물건이 치워지던 날에 이태원역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쓴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희생된 분들을 그리워하며 적은 편지들과 희생된 분들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국화꽃과 편지를 전하며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머물다 가더군요.

참사 당일,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나 사람들의 2차 가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저희가 겪었던 일들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는 우리 같은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행동

했지만 결국 다시 많은 분이 희생되시고 다치고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더 잘했더라면 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안심하고 말할 곳이 없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드셨지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줄 사람들, 사회가 이곳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셨겠지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것 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놀러 가서 부상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어요.’ 그날 그곳에 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 비방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동안 길을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세’자만 들어도 몸이 경직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되고 힘들어서 외출하면 늘 이어폰을 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들과 세월호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주시던 분들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작은 액정 속 수많은 비방 댓글들만 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많은 힘을 얻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유가족 형제자매들과 모임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사이가 되면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존재, 힘들게 버티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형제자매들과 국내외로 다른 재난 참사, 역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Victim blaming(피해자 비난)’이라는 학술용어가 있을 만큼 다른 나라의 재난참사 피해자들도, 홀로코스트 피해자조차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비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떼쓰는 피해자가 아니라 실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알 권리, 살아나올 수 있도록 구조받을 권리,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지킬 권리, 시신 인도 과정을 존중받을 권리, 장례 절차를 포함해 추모와 애도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의문과 질문을 멈추지 않을 권리,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 진상규명 절차와 제도에 참여할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책임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권리,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할 권리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에 대한 권리, 사회적 기억과 추모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ですよ. 구조 및 지원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다양한 피해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다니는데 피해자들만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죄인인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살아야 하느냐고, 형제자매들과 하소연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당연한 피해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피해자 상에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어렵더라도 그 틀 자체를 없애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형제자매들과 그날 이후로 두렵기만 하던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진들을 모아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진 전시를 열었습니다. 꼭 카메라 앞에 서서, 무대에 서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고통, 슬픔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저처럼 당신을 이해하려고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 옆에서 뒤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9명¹⁾의 명복을 빕니다. 한 분 한 분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그날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 주셔서, 살아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4.16 세월호 희생자 박성호 임마누엘(단원고 2학년5반)군의 누나 박보나 보나 드림

1)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에 친구를 잃고 홀로 생존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를 포함했습니다.

와... 주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군요!

최혁 베드로 신부 군종

이전 군부대에서 사목할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부대는 임무의 특성상 전국에 예하 부대들이 산재되어 있었기에 군종목사님, 군종법사님과 팀을 이루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인성교육과 종교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한번은 경남 진해 앞바다 어느 섬에 있는 예하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내가 지내던 지역은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였으니 해당 부대까지는 기차로 3시간 30분, 선착장까지 1시간, 다시 배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제법 먼 거리였다. 군종목사님과 군종법사님과 함께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며 첫날은 부대원들을 세분화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은 종교행사 희망자를 모아서 종파별로 종교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부대에 연락해서 종교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을 요청하였는데 개신교는 13명, 불교는 6명, 천주교는 0명이라는 답변이 왔다. '0명?' 순간 짜증이 올라왔다.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성당으로 돌아왔는데 불편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다. 종교행사와 별개로 인성교육을 하기로 했으니 안 갈 수는 없는데... 성당 신자도 없는 곳에 가기 위해 본당 미사까지 없애고 그 먼 거리를 가려 하니 영 내키지가 않았다. 그래도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인성교육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날 밤에 성전에 앉아 성체조배를 하는데 계속해서 불편함이 가지지 않았다. '그래도 가야지...'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주섬주섬 미사 도구를 담은 트렁크를 끌고 진해로 향했다. 해당 부대에 도착하여 첫날 일정대로 인성교육을 하러 갔더니 열댓 명 남짓한 부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인성교육이 끝나고, 간식을 나누어주면서 천주교 신자는 없는지 슬쩍 물어보았다. 역시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어라? 저 구석에 앉아 계시던 원사님 한 분과 상사님 한 분이 나와 눈을 마주치자 민망해하며 살짝 웃으셨다. 쪼르르 다가가서 물으니 그제야 비로소 신자임을 고백하였다. 한 분은 30년 냉담, 다른 한 분은 20년 냉담중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미사가 있으니 꼭 같이 미사 봉헌하자고 초대를 하였다.

다음 날 혼자서 미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날 만났던 그 두 형제님이 오셨다. 한 분씩 돌아가며 고해성사를 진하게 하고, 그렇게 세 명이 모여서 부대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려 하는데, 전날 인성교육에 참여했던 병사 중 2명이 또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성교육을 듣고 천주교에 관심이 가서 미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1명에서 5명이 되었으니 미사 인원이 순식간에 5배로 늘어난 셈이었다. 순간 마음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올라왔다. '와.. 주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군요!' 그렇게 봉헌하였던 그날의 미사는 참으로 은혜로웠다. 



한국 기물릭 군종후원회
Korean Catholic Chaplain Support Association

먼 데로 떠밀리는 사람들

배삼식, <3월의 눈>

정엄지 마르타 천사네 청년분과

희곡집 <3월의 눈>에는 다섯 편의 희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중 소개하려는 작품은 『먼 데서 오는 여자』입니다. 희곡은 연극을 위한 대본이니 책으로 만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요. 『먼 데서 오는 여자』는 누군가의 지난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금세 빠져들 수 있는 글입니다.

연극이 시작됩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 나이 든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월남과 중동 이야기도 들리는 걸 보니 두 사람의 나이대가 짐작되네요.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어딘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는 아픔입니다. 이따금 기억을 잃고 먼 데로 떠나죠. 너무 멀리 떠나는 바람에 눈 앞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란 사실까지도 잊고 맙니다. 남자는 먼 곳을 헤매는 여자의 옆을 묵묵히 지킵니다. 여자는 멀리 떠났다 현실로 돌아오고, 또 떠났다 돌아오고……. 여자의 기억을 따라 이어지던 연극은 2003년 대구에 머무릅니다.

여자: 내가 왜 대구에 갔었지, 그때? / 남자: 언제? / 여자: 2003년…….

남자, 충격에 빠져 말문을 잃는다. 여자는 서서히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여자: 민영이……. 우리 딸 민영이……. 우리 민영이, 어디 있지?

여자와 남자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 공원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참사의 슬픔은 서서히 잊힙니다.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공원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면

인근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반대했죠. 추모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면서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원에는 제대로 된 위령탑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은 유골 매장에 대한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몰래 묻을 것. 어떠한 표식도 남기지 않을 것.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딸의 유골을 공원에 묻습니다. 희생자 서른두 명의 유골은 그렇게 어떠한 이름도 없이 공원 흙바닥 아래 묻히지요. 그리고 1년 뒤 유가족들은 유골 암매장 혐의로 고발당합니다. 여자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자: 추모하고 애도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추모하고 애도하고 기억하게 해 달라고 싸우다가……. 10년이 흘렀습니다. (중략) 그래요. 죽음은 혐오스러운 거죠. 더 더군다나 아무 죄 없고, 어처구니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억울하고 원이 많은 죽음은 더욱 더, 혐오스러운 거겠지요. 빨리 잊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남자는 차라리 여자가 모두 잊고 아무 아픔도 없는 먼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자는 기어이 그 먼 데서부터 현실로 돌아오지요. 여자를 그 괴롭고 지난한 여행으로 떠미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 데서 오는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먼 데로 떠밀리고 있는 이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혀를 단련시키십시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사 당일 두 명의 친구들을 떠나보낸 고등학생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 보려고 놀러 가서 그렇게 다치고 죽은 것이 아니냐”는 등의 “희생자들을 탓하는 ‘악성 댓글’ 때문에 아들이

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사 이후, ‘그때 거기 있지 말 것을...’이라며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타인의 비난이 가해지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심해질 수 있다.”라면서, ‘악성 댓글’과 ‘추측성 가짜뉴스’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2차 가해 피해’를 우려하여, 지난 2월 4일(토)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앞둔 유가족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언론의 댓글 창을 한시적으로 닫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별생각 없이 단 댓글 때문에,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피해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 변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회자되고 있는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를 바라보면서, ‘말과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과 ‘글’입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stonger than the Sword.)는 서양의 격언처럼, 언어의 수단인 말과 글은 그만큼 큰 힘과 위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앞선 사례처럼 이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저자들은 그래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분했습니다. ‘선한 말’에는 위로의 말, 지혜로운 말, 바른말,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 경우에 맞는 말, 기쁘게 해주는 말, 감사의 말 등이 있습니다. 곧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반면 ‘악한 말’로는 거만한 말, 헛된 말, 부질없는 말, 거짓말, 험

뜬 말, 위선적인 말, 증오의 말, 유혹하는 말, 고자질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상스러운 말, 무엄한 말, 아첨하는 말 등입니다. 이는 곧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본이 좋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은 듣는 사람의 심장을 옥죄고 분노와 화로 치밀게 해서 또 다른 ‘악한 말’, ‘어둠’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品)의 구조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입이 세 개가 모이면, 즉 말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품성이 형성됨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를 깨달은 익명의 누군가는 “한마디의 품격 있는 말을 위해 침묵은 필요하다.”라고 화장실의 벽에다 써 붙여 놓았나 봅니다.

동방의 4대 교부이자, ‘사람을 살리는 말’로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Ioannes Chrysostomus, 349/50-407) 역시 말과 글의 힘과 위력,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잘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혀가 좋은 말을 하도록 단련시키십시오. “네 혀는 악을 조심하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혀를 주신 것은 악한 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서로 비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찬미 노래를 부르고,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주는” 것들(에페 4,29 참조), 교화와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을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히브리서 상해에서』 Ex enarratione in epistulam ad Hebraeos 1,4) 



더 이상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모하지 맙시다. 원주민에게서 배웁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월 10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주최한 제6차 원주민 포럼 글로벌 회의 참가자들을 만났다. 이번 포럼은 “오늘날 유례없는 사회 환경 위기” 가운데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배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황은 각국 정부에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호소하며 “채굴주의와 삼림벌채가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원채굴과 삼림벌채로 상처를 입은 원주민을 위해 전 세계에 이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원주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양식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자원을 탐욕스럽게 약탈할 수 없다는 것을 적절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땅(지구)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우리 어머니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기후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리더십: 회복탄력성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솔루션”이다. 지구 생물다양성의 80퍼센트가 원주민의 땅에서 발견되며 원주민이 전 세계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위기

“원주민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매일 인류에게 제기하는 엄청난 도전에 맞서 전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원주민의 지혜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십시오

“문화, 언어, 전통, 영성을 지닌 전 세계의 원주민을 인정하고 우리 위대한 인류 가족의 풍요로움이 바로 이 다양성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원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 땅에 원래부터 살아왔던 공동체를 업신여긴다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채굴주의와 삼림벌채의 상처

“토양, 환경, 날씨, 초목, 동물군에서 좋은 것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인간적인 태도에 빠집니다. 어머니 대지(지구)와의 접점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이 같은 어우러짐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원주민 문화는 현대 문화로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존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십시오. 첫째, 원주민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메시지는 현명함이지 백과사전 같은 해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을 보고 듣고 만지는 지혜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잘 살아야 합니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부르는 지혜를 줍니다. 사람과 그의 공동체가 어우러지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지며,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주민의 이 조화로운 감각으로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 출처: 바티칸뉴스 2023. 2. 10 (Salvatore Cernuzio / 번역 박수현)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약칭: 아세미)

2월 13일, 아세미(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는 올해 1월 6일 부산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네 명의 새사제와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날 새사제들의 지나온 시간과 서품 모토, 앞으로의 각오를 나누었고, 첫강복과 안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미안마 봄 혁명 2년, 기자회견 및 제100차 릴레이 캠페인

2월 1일(수요일, 10:50), 미안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는 부산시청 앞에서 군부쿠데타 후 미안마 봄혁명 2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미안마 군부쿠데타 2년 동안 2천8백 명이 살해되고 1만7천 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주일, 11:00), 미안마 민중과 함께하는 제100차 캠페인, 집중집회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미안마 노동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과 초량 일대를 행진하며 미안마 민주화의 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100일 부산추모대회 및 유가족 간담회

2월 5일(일/ 17:00) 서면에서 유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추모 부산시민 준비위' 주최로 100일 부산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2월 14일(화/19:0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산시민사회는 간담회를 가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반도 평화, 김진향 박사 초청 특강

2월 18일(토/14:0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김진향 박사(한반도 평화 경제회의 상임의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평화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를 알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 동영상 강의 보기 <https://url.kr/8xvbre>

3.1절 104주년 기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수여식

일시: 3월 1일(수) 15:00/ 정발장군동상 앞

매달 첫 주일, 미안마와 함께하는 날(집중집회)

일시: 3월 5일(일) 11:00 / 부산역 광장

3.11 후쿠시마 12주기 집중대회 및 오염수 방류규탄 행진

일시: 3월 11일(토) 14:00 / 부산역 광장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17일 ~ 2023년 2월 15일)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용대(2)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귀애 김서현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종민신부 박준철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 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재영(2)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소정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상애 이소라 이우형 이영복 이영훈신부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수련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하민진 허채현 황수엽 황진 익명(3) | **원고 후원** | 김현신부 유연창신부 전동묵신부 조현우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 신규 후원인은 사무국으로 꼭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2023 봄 정기대회

일문은 왜
사죄하지 않는가?

강사
김창현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사)한반도 평화안 현명돌봄원안 협력 이사장

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19:30
장소 :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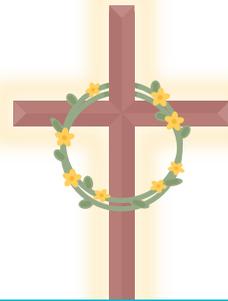
더 나은 정치와 사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실수, 부패, 무능 때문에 흔히 정치를 불쾌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경제로 대체하려 하거나, 하나의 이념이나 다른 이념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 형제들』 5장)



- 일 시 2023년 4월 27일 ~ 5월 11일(3주간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3만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수도자 : 2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신청하기 4월 24일까지 <https://url.kr/qlowb9>
- 문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4월 27일	공동선을 위한 정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서울대교구)
5월 4일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유와 민주주의	
5월 11일	정치와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기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cs.co.kr